광주시·전남도 내년도 국비 정부 예산안 확정

# AI 등 미래 성장동력 발판 마련

## 광주시

### 전년보다 10.1% 증액…정부 총예산 증가율 웃돌아
### 강기정 "국회 대응체제 전환…국비 추가 확보 총력"

광주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616억원으로 확정돼 전년(3조3244억원)보다 10.1%나 증액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안은 국회 최종 확정액(3조3858억원)보다도 2758억원(8.1%) 늘어난 데다 정부 총예산 증가율 8.1%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인공지능(AI) 2단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3대 국가 문화시설 등 지역 미래산업과 현안사업들이 대거 국비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현황을 보면 먼저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 AI·모빌리티·반도체 분야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AI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AI로 전환하고 도시문제와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하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240억원이 반영됐다.

또 자율주행차량 실증·운행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과 AI기반 도시통합관리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를 조성하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10억원), 재제조 제품 성능평가 장비와 플랫폼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2억원) 등이 포함됐다.

| 사업명 | 반영액 |
|---|---|
| AX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 | 240억 |
|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용역 | 10억 |
| AI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 10억 |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1665억 |
|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 5억 |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 | 10억 |
|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 238억 |
| 마륵동 탄약고 이전 | 15억 |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 1672억 |
| 국회도서관 분관 | 1.5억 |

여기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1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26억8000만원), 미래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2억9000만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로써 미래차·에너지의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AI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돼 대한민국 AI 성장의 교두보로서 광주 위상이 한층 더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5억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건립(10억원),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1억5000만원) 관련 예산이 중앙부처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에 포함돼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1억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55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45억원),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5억원), 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6억원), 충장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9억원), 어린이 아트사이언스파크 건립(2억원) 등이 반영돼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한층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17개 사업이 전년대비 36억원 증액된 208억원이 반영됐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7억원 증액된 1665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238억원이 확보돼 차질없이 진행된다.

또 마륵동 탄약고 이전(15억원),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건설(7억50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19억5000만원) 등도 확보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광역교통망 지역연계 강화 방점

## 전남도

### AI 분산형 전력망 등 미래 100년 신규 사업 반영
### 호남고속철·경전선 전철화 등 광역 인프라 탄력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9조4188억원을 반영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단순히 확보액이 늘어난 것을 넘어 광역 교통망 확충, 에너지 신산업 육성, 농수산업 고도화, 문화·관광 인프라, 생활 안전 분야까지 지역의 현안과 미래 전략이 균형 있게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도는 이번 성과를 '국비 9조 시대'를 넘어 '10조원 시대'로 가는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이상 증액을 통해 최종 9조7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광역 교통망이다. 광주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1632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1672억원이 반영됐고 전라선 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비도 포함됐다. 강진광주 고속도로, 여수 화태백야도로,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등 남해안축 연결 도로망이 대거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공사비 520억원이 포함된 것도 상징적이다. 무안·여수공항 시설 개선비 96억원이 반영돼 무안공항은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와 활주로 정비에 나서고 여수공항은 착륙대 확장과 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하게 된다.

| 사업명 | 반영액 |
|---|---|
| 호남고속철도 2단계 | 1632억 |
| 전라선 고속화 철도 기본계획 수립 | 5억 |
|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 1196억 |
| K-Grid 인재·창업 밸리 | 195억 |
| 국가농산업 AI 플랫폼 | 200억 |
| 산림버섯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 3.5억 |
|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구축 | 22억 |
|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열기술 관리개발 | 16억 |
|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 32억 |
|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 1.5억 |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신산업 예산도 집중됐다.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에 1196억원이 반영됐고, 대학·연구소·기업 간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을 위한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 195억원,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지원 180억원, 고전력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50억원도 포함됐다. 서남해 해상풍력 산업과 맞물려 해상풍력 부품 시험센터 구축비 20억원까지 확보하면서 전남이 구상해온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국가 농산업 AI 플랫폼 200억원, 산림버섯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설계비,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장비 구축비 등이 반영돼 전남의 대표 품목인 김 산업을 국제 표준화하고 농업 전반을 스마트화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

첨단 연구개발(R&D)과 전략산업도 다방면으로 포함됐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 기반 구축 22억원,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열관리 기술개발 16억원,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20억원, 미래 이차전지 소재 실증 플랫폼 23억원,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원천기술 개발 40억원 등이다. 수소·선박·배터리·바이오 등 전남이 중점 추진해온 미래 산업이 두루 포함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문화·관광 인프라도 확충된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설계비 35억원, K-디즈니 애니·웹툰 인재양성 거점 3억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663억원이 포함됐고, 신규 사업으로 영광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등이 반영됐다.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 수요를 끌어낼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연재해 대응과 생활 안전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지난 30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에이스 페어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빛돌이, 빛나영 등 캐릭터와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에이스페어 성료…비즈니스 상담 계약 봇물

### 광주디자인진흥원 공동관 67개 기업 84개 부스 운영
### 국내외 바이어 업무협약 등 계약 21건 15억원 성과

국내 최대 문화콘텐츠 전문 전시회인 '2025 광주 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에이스페어'를 공동 주관해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 분야 기업들과 함께 공동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동관은 (사)한국캐릭터협회, (사)한국스마트융합산업협회, (사)한국여성캐릭터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사)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마련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광주디자인진흥원 홍보관을 포함해 총 84개 부스를 운영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홍보관은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또 임동디지털창작소와 협업해 참가기업의 캐릭터를 활용한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머그컵 만들기', '스티커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공동관에 참여한 기업들은 국내·외 바이어와 약 499건, 218억원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업무협약을 포함한 계약 성과는 약 21건, 1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볼베어 캐릭터 개발기업 창의적 발견(대표 이수원)은 대만의 대표적 캐릭터 유통·배급사 Creative Century Entertainment와 10만달러 규모의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글로벌 아동·가족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Park Star Media와는 30만달러 규모의 라이선싱 파트너 MOU를 맺어 주목을 받았다.

지역 로컬 캐릭터 '무스'를 개발한 ㈜디자인숨(대표 임지연)은 불닭 캐릭터 '호치'의 저작권사인 ㈜드컴파트너스(대표 황재오), 청년 창업기업 ㈜아로마무드랩(대표 국인정)과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가 캐릭터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 캐릭터랜드를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지역 IP가 세계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